

국제방송교류재단

The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undation

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만남

1992년 6월말 장마가 시작될 즈음, 방송관련시설에 인연이 깊던 구설계6실 입구에 “경고 -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뜻말이 내걸려지면서 4주간의 현상설계는 시작되었다. 김철성부사장님께서 그당시 설계실의 선장임무를 맡으시면서 처음 시작된 현상설계 Project인지라 선장이하 갑판원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좌초아니면, 정복이라는 뜻을 내걸고 노를 저어댔다. 그리하여 7월 30일 마지막 장마비를 맞으며 계획안은 제출되었다.

도시문맥과 배치

예술의 전당 - 국립 국악원의 문화공간과 서초구지정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장소성에 대한 도시문맥의 올바른 해석과 수용방법 그리고 각 Studio와 이것을 지원하는 시설의 기능별 유기적인 Zonning화 작업은 이번 Project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일이었다. 우선, 도시문맥적 측면에서 그러한 문화적인 외적요소와 접목시키기 위해 전면도로와 Mass를 가능한 이격시켜 개방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간접문화공간 - 길거리 전시회 등 - 으로서의 활용성을 부여하였다.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대지의 주변중에 3면이 주거지로서 소음, 진동에 민감한 Studio Zone을 주거지 방향으로 배치하되,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지원시설 등의 기능은 남북순환도로변으로 배치하여, Studio를 가능한 음향 은폐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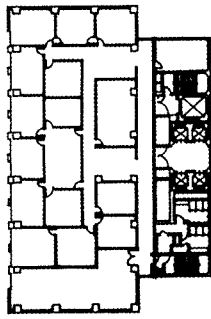
형태와 평면

업무용도 보다는 방송 Program제작, 즉 영상예술적 성격이 부각되는 시설로서 내부의 그러한 행위의 Image를 기하학적 건축형태로 표출되도록 하여, 예술행위의 Motive를 형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Mass들의 분명한 윤곽과 외형적인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면적인 요소에 대비되는 선적인 요소를 전체 입면에 적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화강석재를 사용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 시설별 동선계획은 Program제작 부분과 지원시설부분으로 분할하는데 역점을 두어, 크게 지하에서는 Studio와 주차장으로, 지상에서는 Studio와 부대시설로 구분하되, 분할구성된 각 공간들은 매개역할을 하는 Core로 연결, 상호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Studio는 기능상 외부음환경의 악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지하에서는 중앙에 Studio를 배치하고, 주변에는 지원 및 부대시설과 Core로 에워싸는 형태를 취하여, 남북순환도로 및 주변도로, 옥내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가능한 차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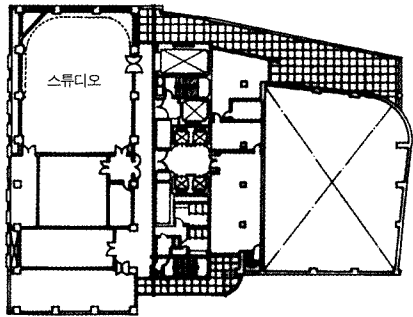
단면계획에 있어, 대지의 Level차를 이용, 전면에서의 진입은 2층로비 및 Sunken Garden과 연결하고, 후면에서는 Piloti를 통하여 1층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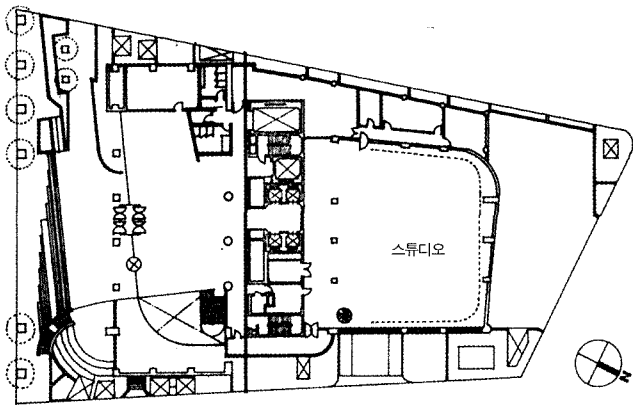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80의 3필지	주요용도	방송통신시설
대지면적	3,097.7㎡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일반거주지역, 4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외부미감	THK30mm 화강석 버너구이+물갈기, THK24mm 컬러+파스텔 복층유리
건축면적	1,746.25㎡	준 공	96년 12월
연 면 적	23,964.39㎡	설 계 팀	김철성, 김상진, 이병호, 손재하, 엄경영, 김재국, 이원, 배완덕, 신황일, 김정록, 이정환, 이미연, 김태은, 김영근, 김동렬, 윤규섭
건 폐 율	56.37%		
용 적 륜	395.09%		
규 모	지하6층, 지상1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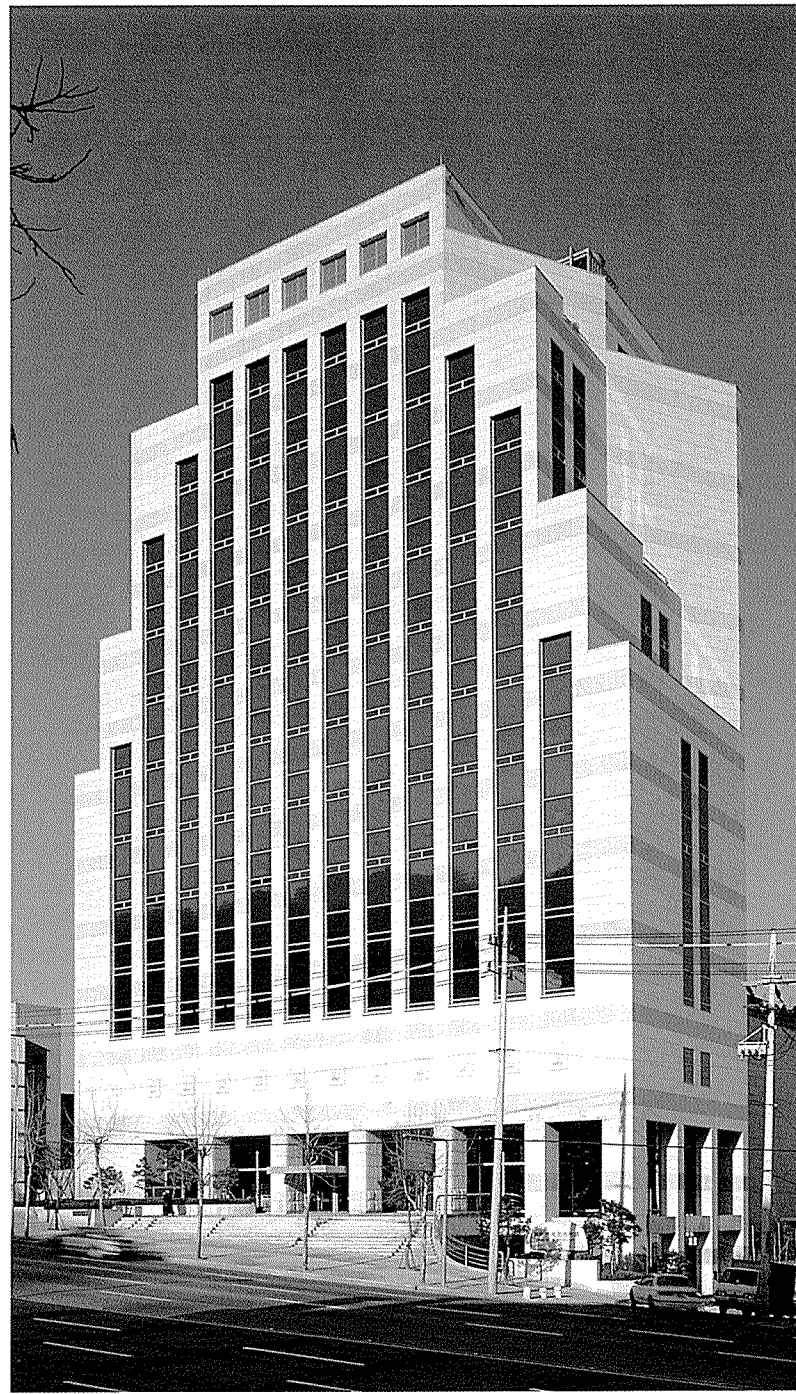
7층평면도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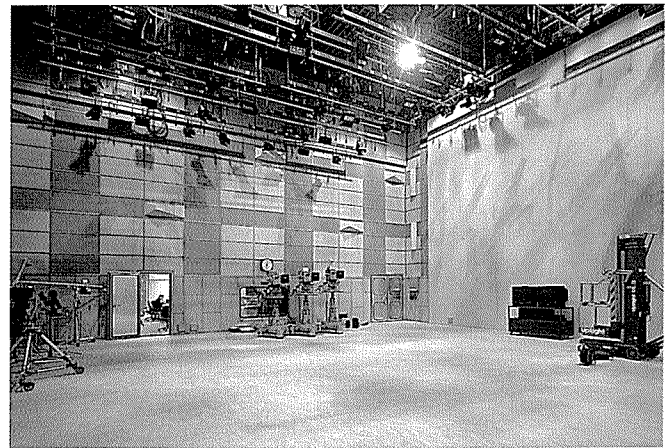
2층평면도



동측 전경



2층 로비



지하4층 다목적 스튜디오